

대학생의 가치관과 성적 및 만족도와의 관계 - 경찰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

백순근(白淳根)* · 김보규(金保圭)**

논문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경찰대학생들을 위한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경찰대학 재학생 총 19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alpha=0.01$ 수준에서 경찰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가치관의 각 하위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대학의 가치관 형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주요어 : 가치, 가치관, 대학생의 가치관, 대학 성적, 대학에 대한 만족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경찰대학교 교수요원

I. 서론

가치관(價値觀)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을 의미하기도 하며, 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갈등상황이나 중요한 선택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판단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가치관은 개인의 삶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인생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치관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 가치관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치관이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선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정범모, 1976; 황정규, 1984; Kluckhohn, 1951; Rokeach, 1973, 1979). 즉, 가치관은 사회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하고,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판단하여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기준이 되며,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도덕적이거나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은 갈등을 해소하고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나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어 정원식(1976)은 학교학습의 성과는 학습자의 특성 중 특히 동기, 자아개념, 불안, 가치관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과 함께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황정규(1984)도 학교현장에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의적 특성을 흥미, 태도, 자아개념, 가치관 등으로 예시하고, 이와 같은 특성들은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혜섭(2000) 등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성적이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가치관이 대학교 성적이나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가치관의 지속성에 관한 여러 연구들(황응연, 1975; Bender, 1958; Cross, 1968; Kuh, 1976; Rochester, 1970)에 따르면 비록 대학 생활 동안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를 어느 정도라도 기대할 수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과 특성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다음, 대학생의 가치관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들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 가치관과 만족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경찰대학 학생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학의 가치관 형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가치와 가치관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가치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치와 가치관의 의미

인간의 가치 및 가치관은 철학이나 윤리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치의 속성에 대한 논의는 철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주제 중 하나였다(김정일, 이관춘, 2000).

철학에서 가치의 속성에 대한 핵심적 논의 중 하나는 객관적 또는 실재적 가치론(objective or realistic value theories)과 주관적 또는 심리적 가치론(subjective or psychological value theories)에 대한 논쟁이었다. 즉, 가치는 가치를 부여받는 대상의 속성인가 아니면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속성인가에 관한 논란이다. 객관적 또는 실재적 가치론에서는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주관적 작용과 무관하게 대상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가치 판단의 대상 자체가, 가치 판단을 하는 인간의 주관적·심리적 작용과는 무관하게, 본래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에, 주관적 또는 심리적 가치론에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작용을 떠난 대상의 본래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그것이 인간을 즐겁게 하는 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

으며, 상황이 바뀌어 그것이 더 이상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바라는 어떤 대상은 그 대상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바라는 심리 작용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김태길, 1981; 정혜섭, 2000).

이러한 가치의 속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여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Kluckhohn(1951)의 연구 이후 가치관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김철민, 1999). Kluckhohn(1951)은 가치를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묵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으며, 한 개인이나 집단을 특징지어 주는 것'이며 '개인 또는 집단이 행동의 제반 양식, 수단, 혹은 목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외현적 또는 내재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치관을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 대 환경 및 대인관계에 관련되는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Williams(1952)는 가치를 '좋다, 나쁘다, 또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선택적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한 상황·사건 또는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였으며, Newcomb 외(1965)는 가치관이란 '행동의 표준 혹은 특정의 사물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할 수 있는 공통점' 또는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요컨대 가치란 바람직한 것과 관련된 개념이며, 가치관이란 가치가 일반화·조직화된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 후 Rokeach(1968, 1973, 1979)에 의해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더욱 체계화·이론화되기 시작하였다(김철민, 1996; 차재호, 1994). Rokeach는 심리학적 이론화에 기여하였는데, 그는 Kluckhohn 등이 언급한 '바람직한(desirable)'의 뜻이 애매하므로 '선호(preference)'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가치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안의 것이나 반대의 것보다) 더 선호하는 일종의 행동 양식(mode of conduct), 혹은 개인이 인생에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상태(end-state of existence)에 관련한 하나의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의 집합이 가치 체계(value system), 즉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가치 체계는 기본적 분석 단위가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전체적인 인지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 체계는 그 개인의 삶의 지침(guiding principle)으로서 중요한 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가치 체계가 다양한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 전제는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 갈등(value conflict)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Rokeach는 가치란 비교적 지속적이며 선호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가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지만, 반면에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 연속성을 제공해 줄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가치는 가변적이지만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의 이런 특성은 가치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질서인 가치관에도 적용된다. 즉, 가치관 내에서의 가치의 중요성의 서열은 인생을 통해 불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치관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또한 가치는 선호하는 것에 대한 신념이며,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신념과 같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수단과 목적에 대한 인식이며, 가치는 중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정 혹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활성화된 가치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행동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의 가치관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가치관과 태도는 모두 신념들의 집합이지만, 전체 신념 체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자아개념(self-concept)에 관련한 신념들의 집합이고, 가치관과 태도는 그 주변에 있는 신념들의 집합들로 보았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은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작용을 하고, 태도와는 달리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신념들은 수십 개에 지나지 않지만, 태도에 해당하는 신념들은 매우 많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끝으로 Rokeach는 가치를 정의하면서 그 구성 요소로 개인이 인생에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상태(end-state of existence)와 더 선호하는 일종의 행동 양식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치관의 내용 영역을 그제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개인이 인생에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궁극적 가치관(terminal values)으로, 더 선호하는 일종의 행동 양식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도구적 가치관(instrumental values)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황응연(1975)은 가치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 가치관은 환경적 자극과 개인의 행동을 중개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가치관은 문화적인 산물이지만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하고 있다. 둘째,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내면화되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셋째,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과 이념 내지 신념이다. 넷째, 이 같은 이념 내지 신념은 개인의 심리적 체계를 체계화하여 인간행위와 사상에 대해 질서와 방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가치관 '바람직한 것 혹은 추구할 만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비교적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신념'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가치관이란 이러한 '가치들을 판단하는 관점 혹은 가치들이 조직화된 체계(system)'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관의 기능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이나 삶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예컨대, 박용현(1970)은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가치관을 문화가치가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된 것으로 보고, 다른 심리 특성들을 균형 있게 조정, 통합하는 심리적 기능과 반응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동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치관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방향과 태도를 규정해 주는 동기로써 작용한다. 그리고 내면화된 가치관은 감정을 수반하고 정의적 특성을 이루면서 개인이 접촉하는 사물과 사태에 대한 지각과 인식 양식을 결정하고, 사회적 행동의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평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울러 심리 구조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은 심리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행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Rokeach(1973)는 가치관의 기능으로 규범으로서의 기능과 계획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동기유발의 기능을 들고 있다. 첫째, 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가치를 인간이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인도하는 다양한 규범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standard)이 된다. 둘째, 계획으로서의 기능은 가치관이 갈등 해결이나 중요한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갈등 장면에서 직면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가치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치들을 적용해 보게 된다. 셋째, 동기유발의 기능은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유발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능들이 직접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의 행위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은 더 넓고 먼 것으로부터 인간의 기본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범모(1976)는 가치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치관은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좌우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둘째, 가치관은 사람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하여, 장면과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셋째, 가치관의 여하는 우리가 인생의 어디에서 그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넷째, 가치관은 사람들이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을 제공해 주며 나아가 그 사람이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동기유발의 기능, 여러 가지 사물과 사태에 대해 평가를 내리게 하는 평가적 기능, 인간의 행위나 활동을 인도하고 갈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規範的) 기능 등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있다.

3. 가치관의 유형

가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Broudy(1952)는 8가지, 즉 ① 경제적 가치, ② 건강적 가치, ③ 오락적 가치, ④ 사회적 가치, ⑤ 도덕적 가치, ⑥ 심미적 가치, ⑦ 지적 가치, ⑧ 종교적 가치로 나누었다. 또한 Allport(1961)는 6가지 ① 이론적 가치, ② 경제적 가치, ③ 심미적 가치, ④ 사회적 가치, ⑤ 정치적 가치, ⑥ 종교적 가치로 나누었으며, Taylor(1961)는 9가지, 즉 ① 도덕적 가치, ② 심미적 가치, ③ 지적 가치, ④ 종교적 가치, ⑤ 경제적 가치, ⑥ 정치적 가치, ⑦ 법적 가치, ⑧ 전통 혹은 관습적 가치, ⑨ 교육 제도적 가치로 나누기도 하였다(김정환 외, 1998; 한명희, 1983).

한편 가치들이 조직화된 체계라 할 수 있는 가치관의 유형을 Allport와 Vernon(1931, 1951)은 6개의 이상적 가치의 유형과 관련하여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김신동, 1999; 정진곤, 이관춘, 1997).

- ① 이론적(theoretical) 가치관: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가치관으로서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과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 ② 경제적(economic) 가치관: 어떤 것이 실용적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가치관으로서 철저하게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 ③ 심미적(aesthetic) 가치관: 형식과 조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으로서 우아, 균형, 적합 등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한다.
- ④ 사회적(social) 가치관: 인간들의 애정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이타적이다.
- ⑤ 정치적(political) 가치관: 권력과 영향력의 획득을 강조하는 가치관으로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높은 정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 ⑥ 종교적(religious) 가치관: 하나의 전체로서의 우주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통일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서 화합에 큰 가치를 둔다.

또한 Kluckhohn과 Strodtbeck(1961)은 문화인류학의 측면에서 가치관을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문화구조와 가치관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공통된 인간 문제를 다음의 5가지로 한정시키고 각각의 문제에 따르는 가치관을 3개로 세분하였다. 첫째,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본래 선하다는 입장과 중립이라는 입장, 그리고 악하다는 입장으로 구별된다. 둘째, 인간의 자연관에 대해서는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연과 화합하여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자연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별된다. 셋째, 인간의 시간관은 인간 생활의 시간적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로 과거지향, 현재지향, 미래지향으로 구별된다. 넷째,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존재지향, 수양지향, 성취지향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존재는 현재의 욕구나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수양은 인간의 내재적 욕구를 통제하고 모든 면을 개발하여 완전히 통합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성취는 측정될 수 있는 성과와 업적을 중시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강조한다. 다섯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적, 횡적, 개인적 지향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종적 지향은 집단의 문화적 계속성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상하를 따지며 사회생활에서 지위를 존중한다. 횡적 지향은 수평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목표와 복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개인적 지향성은 개인적인 목표나 역할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

Spindler(1963)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치관을 전통적 가치관(traditional values)과 신생적 가치관(emergent values)으로 나누었다. 전통적 가치관에는 절대적 도덕성, 미래 지향성, 과업 지향성, 자기 독립성, 성취 지향성이 있다고 하고, 이에 반하는 신생적 가치관에는 상대적 도덕성, 현재 지향성, 집단 중심성, 타인 중심성, 사교 지향성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른 학자들이 가치관을 몇 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한 데 반해 Rokeach(1973)는 가치관을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개인의 가치를 추상성 정도에 따라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별하였다. 궁극적 가치는 개인이 인생에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상태(end-state of existence)이며, 도구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행동 양식(mode of conduct)이다. 궁극적 가치는 목적의 성격이 강하고, 도구적 가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궁극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에 비해 추상성 정도가 높다. Rokeach의 궁극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Rokeach의 가치 분류

| | |
|--------|---|
| 궁극적 가치 | 안락한 생활, 자극적인 생활, 성취감, 세계 평화, 아름다움의 세계, 평등, 가정의 안전, 자유, 행복, 내적인 조화, 성숙한 사랑, 국가의 안전, 즐거움, 구원, 자존심, 사회적인 인정, 진정한 우정, 지혜 |
| 도구적 가치 | 야심 있는, 마음이 넓은, 능력 있는, 쾌활한, 깨끗한, 용기 있는, 관대한, 도움이 되는, 정직한, 상상력이 있는, 독립심이 있는, 지적인, 논리적인, 애정이 깊은, 순종할 줄 아는, 공손한, 책임 있는, 자제심이 있는 |

한편, 백순근(2000)은 가치의 다양성을 논의하면서, 학문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 등과 구별되는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는 다른 가치들과 개념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를 '교육적인 현상을 다른 현상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특성이면서 동시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준거로 ① 개선·향상, ② 성의·열의, ③ 개성·전인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유형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자들마다 각각의 연구에서 상이한 가치관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관의 유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치관 그 자체가 가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치관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대상, 연구가 수행되는 지역의 문화 등에 따라 가치관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 검사(측정 도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 가치관과 만족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경찰대학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4년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1, 2, 3, 4 학년생들이었으며, 이 중에서 1학년 학생들(106명)은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1차와 2차의 예비검사의 대상이었으며, 2, 3, 4 학년생들(총 199명)은 본 검사의 대상이었다.

2. 검사(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들인 경찰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측정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측정 도구는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전 학기까지의 학기별 학점과 평점, 그리고 학기별 학년 석차를 파악하였으며, 개

별 학생의 학기별 석차백분위의 평균점수를 해당 학생의 대학 성적으로 활용하였다.

1) 가치관 검사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가치관 검사를 제작하기 위해, 경찰대학의 창학 이념과 교육 목표 등에 나타나있는 핵심가치(단결심, 희생정신, 조국, 정의, 명예 등)와 기존의 가치관 검사들(김신동, 1999; 김철민, 1996, 1999; 임인재, 백순근, 1986; 전추옥, 1989; 정혜섭, 2000)을 참고하여 가치관의 하위 영역을 결정하고 또 예비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예비 문항들을 편집한 후 경찰대학 1학년 학생(106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 확인 및 문항 선정 작업을 거쳐 본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가치관 검사의 하위 영역과 주요 내용, 문항 수, 문항의 예시 등은 <표 2>, <표 3>과 같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고, 각 응답은 1~5점으로 채점되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표 2> 가치관 검사의 하위 영역 및 내용

| 하위 영역 | 하위 요소 | 내용 | 문항 수 |
|-------|------------|---|------|
| 국가관 | 국가에의 충성심 |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직한 마음. | 2 |
| | 희생정신 | 국가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목숨, 재산 등을 바치거나 버릴 수 있는 정신. | 2 |
| | 애국심 | 국가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 2 |
| | 통일애의 염원 | 남북통일을 바라는 마음. | 2 |
| | 조국에 대한 자부심 | 조국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 2 |
| 사회관 | 자유주의 |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사상. | 2 |
| | 민주주의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2 |
| | 법치주의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지울 수 없다는 원리. | 2 |
| | 자본주의 |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 2 |
| | 사회 공동체의식 |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개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에 대해 배려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 2 |
| 인간관 | 지성 |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 | 2 |

| | | | |
|-----|-----------------|---|----|
| | 덕성 |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 2 |
| | 강건한 육체 | 강인한 체력. | 2 |
| | 윤리의식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에 따르는 것. | 2 |
| | 용기 |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 2 |
| 경찰관 | 사명감 |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잘 수행하려는 의지나 마음가짐. | 2 |
| | 명예 | 외형으로는 한 인간의 지위 또는 업적에 대해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존경, 내면으로는 자신의 일과 성취에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심리상태. | 2 |
| | 봉사정신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마음. | 2 |
| | 동료애 (인화와 단결) | 집단 내에서의 조화와 화합에 가치를 두며 집단 속의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행동(또는 노력)하는 것. | 2 |
| | 정의감 |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옳바름을 지향하는 정신이다. | 2 |
| 계 | | | 40 |

<표 3> 가치관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희생정신)

| 문항내용 | 5점 척도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가치관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국가관이 0.80, 사회관은 0.83, 인간관은 0.83, 경찰관은 0.84로 나타났다.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및 안면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내용 및 안면타당도는 관련 자료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관련분야 교수 1인과 대학원생 7인에 의해 검토·보완되었으며,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및 Varimax 회전 활용)과 하위영역 간의 상호상관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치관 검사 도구에 대한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치관’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으며(전체 변량의 70.0% 설명), 각 영역별 문항들은 이론적으로 상정하였던 5개의 하위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부록 1> 참조).

2)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들인 경찰대학생들에게 적절한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제작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들(권대봉 외, 2002a, b; 김명숙 외, 1994; 서민원, 1996;

Astin, 1977, 1993; LeBlanc & Nguyen, 1999; 등)을 검토하여,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 즉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후 진로(경찰직)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고, 기존의 만족도 검사들을 참고하여 예비검사를 제작하였다. 이후 경찰대학 1학년 학생(106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 확인 및 문항선정 작업을 거쳐 본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하위 영역과 주요 내용, 문항 수, 문항의 예시 등은 <표 4>, <표 5>와 같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제시되었고, 각 응답은 1~5점으로 채점되었으며, 각 영역별 점수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0.94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영역이 0.88,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역이 0.89,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영역이 0.86, 향후 진로에 대한 만족도 영역이 0.82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검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및 안면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내용 및 안면타당도는 관련 자료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관련분야 교수 1인과 대학원생 7인에 의해 검토·보완되었으며, 구인타당도는 요인분석(주성분분석 및 Varimax 회전 활용)과 하위영역 간의 상호상관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4개의 하위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으며(전체 변량의 69.1% 설명), 각 영역별 문항들은 이론적으로 상정하였던 하위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부록 2> 참조).

<표 4> 대학에 대한 만족도 하위 영역 및 내용

| 하위 영역 | 하위 요소 | 문항 수 |
|--------------------|----------------------------|------|
|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4 |
| | 교수의 능력(업적 및 강의 능력)에 대한 만족도 | 4 |
| | 과제 및 평가에 대한 만족도 | 4 |
|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 전공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3 |
| | 교양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3 |
| | 훈육 및 계절학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3 |
| |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3 |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과외 활동(동아리,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 | 4 |
| | 학교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 4 |
| | 학교생활 시설에 대한 만족도 | 4 |
| 향후 진로(경찰직)에 대한 만족도 |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 6 |
| | 경위라는 계급에 대한 만족도 | 6 |
| 계 | | 48 |

<표 5>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교수능력에 대한 만족)

| 문항내용 | 5점 척도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 학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과 전문성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대상들인 경찰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제작·활용하였으며,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승산율(勝算率, odds ratio)을 분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가치관에 있어 학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백순근, 2004).

IV. 연구 결과

경찰대학생들의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 통계

1) 가치관

우선, 경찰대학생의 가치관 실태의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 통계치를 구하였다(5점 만점). 가치관 검사의 전체 및 하위영역별 기초 통계치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치관 검사 결과 기초 통계치(5점 만점)

| | 최소치 | 최대치 | 평균 | 표준편차 |
|-----|------|------|------|------|
| 국가관 | 1.70 | 4.90 | 3.69 | .49 |
| 사회관 | 2.40 | 5.00 | 3.94 | .49 |
| 인간관 | 2.60 | 5.00 | 3.88 | .50 |
| 경찰관 | 2.60 | 5.00 | 3.91 | .48 |
| 전체 | 2.75 | 4.93 | 3.85 | .41 |

<표 6>을 살펴보면, 가치관 하위영역별로 국가관의 평균이 3.69, 사회관의 평균이 3.94, 인간관의 평균이 3.88, 경찰관의 평균이 3.91로 나타났으며, 가치관 전체 점수의 평균은 3.85로 나타났다. 가치관 검사 점수의 중간 점수가 3점인 것을 감안할 때, 경찰대학생의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치(국가관 1.7, 사회관 2.4, 인간관 2.6, 경찰관 2.6)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가치관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학에 대한 만족도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 결과의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 통계치를 구하였다(5점 만점).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전체 및 하위영역별 기초 통계치는 <표 7>과 같다.

<표 7>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 결과 기초 통계치(5점 만점)

| | 최소치 | 최대치 | 평균 | 표준편차 |
|-------------|------|------|------|------|
| 교수진에 대한 만족 | 1.17 | 4.92 | 3.32 | .53 |
|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 1.09 | 4.82 | 3.15 | .60 |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 1.63 | 4.63 | 3.22 | .63 |
|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 | 2.11 | 4.67 | 3.51 | .50 |
| 전체 | 1.64 | 4.55 | 3.30 | .47 |

<표 7>을 살펴보면, 각 하위영역별 만족도 평균은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3.3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3.15,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3.22,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3.51로 나타났으며, 전체 만족도 평균은 3.30으로 나타났다.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3.51)가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3.15)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치를 살펴보면, 각 하위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1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

1) 가치관과 성적과의 관계

가치관과 대학 성적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가치관과 대학 성적 간의 상관관계

| | 전체 | 국가관 | 사회관 | 인간관 | 경찰관 |
|-------|-------|-------|-------|-------|-------|
| 대학 성적 | .39** | .40** | .28** | .29** | .34** |

** p < .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가치관 영역과 대학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치관 전체 총점과 대학 성적과의 상관은 .39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국가관이 .40, 사회관이 .28, 인간관이 .29, 경찰관이 .3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치관과 대학 성적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승산율(勝算率, odds ratio)을 구하였다. 가치관 전체 및 하위영역에서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 성적이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 각각의 승산율을 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가치관 전체 및 하위영역별 승산율(대학 성적 상위 30%)

| | 상위 30% | 하위 30% |
|--------|--------|--------|
| 가치관 전체 | 1.6 | 1 |
| 국가관 | 2.5 | 1 |
| 사회관 | 2.4 | 1 |
| 인간관 | 1.7 | 1 |
| 경찰관 | 1.4 | 1 |

<표 9>를 살펴보면, 대학 성적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가치관 전체 점수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 보다 1.6배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대학 성적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국가관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 보다 2.5배 많으며, 사회관은 2.4배, 인간관은 1.7배, 경찰관은 1.4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수행한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상관분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치관과 만족도와의 관계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 가치관 \ 만족도 | 전체 | 교수만족 | 과정만족 | 생활만족 | 진로만족 |
|-----------|-------|-------|-------|-------|-------|
| 전체 | .56** | .49** | .38** | .44** | .57** |
| 국가관 | .56** | .50** | .47** | .42** | .46** |
| 사회관 | .31** | .30** | .16* | .20** | .41** |
| 인간관 | .47** | .40** | .32** | .38** | .47** |
| 경찰관 | .53** | .44** | .32** | .47** | .55** |

* p < 0.05; ** p < 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가치관의 하위 영역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 영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alpha=0.05$ 혹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치관 전체 점수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전체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5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치관 전체 점수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49,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38,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44,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가 .57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에 대한 만족도 전체 점수와 가치관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국가관이 .56, 사회관이 .31, 인간관이 .47, 경찰관이 .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승산율(勝算率, odds ratio)을 구하였다. 대학생의 가치관 전체 및 하위 영역에서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 각각의 승산율을 나타내었다.

<표 11>을 살펴보면, 대학에 대한 만족도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가치관 전체 점수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 보다 5.9배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국가관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 보다 8배 많으며, 사회관은 2.7배, 인

<표 11> 가치관 전체 및 하위영역별 승산율(대학에 대한 만족도 상위 30%)

| | 상위 30% | 하위 30% |
|--------|--------|--------|
| 가치관 전체 | 5.9 | 1 |
| 국가관 | 8 | 1 |
| 사회관 | 2.7 | 1 |
| 인간관 | 4.9 | 1 |
| 경찰관 | 6 | 1 |

간관은 4.9배, 경찰관은 6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수행한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상관분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대학 성적과 만족도와의 관계

대학 성적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대학 성적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 | 전체 | 교수만족 | 과정만족 | 생활만족 | 진로만족 |
|-------|-------|-------|------|-------|-------|
| 대학 성적 | .27** | .27** | .12 | .21** | .32** |

** p < .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 영역과 대학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만족도 전체 총점과 대학 성적과의 상관은 .27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교수만족이 .27, 생활만족이 .21, 진로만족이 .3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성적과 만족도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의 경우에는 대학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성적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승산율(勝算率, odds ratio)을 구하였다. 만족도 전체 및 하위영역에서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 성적이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 각각의 승산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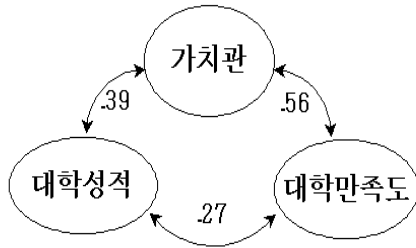
<표 13>을 살펴보면, 대학 성적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만족도 전체 점수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 보다 1.8배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위

<표 13> 만족도 전체 및 하위영역별 승산율(대학 성적 상위 30%)

| | 상위 30% | 하위 30% |
|--------|--------|--------|
| 만족도 전체 | 1.8 | 1 |
| 교수만족 | 1.8 | 1 |
| 과정만족 | 1 | 1 |
| 생활만족 | 1.2 | 1 |
| 진로만족 | 2.4 | 1 |

영역별로는 대학 성적 상위 30%내에 속하는 학생들 중 교수만족 상위 30%에 속하는 학생수가 하위 30%내에 속하는 학생수보다 1.8배 많으며, 과정만족은 1배, 생활만족은 1.2배, 진로만족은 2.4배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수행한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 영역과 대학 성적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관분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생의 가치관과 성적 및 만족도와의 관계 (상관계수)

3. 학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학년에 따라 가치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1학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구하였는데, 본 검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예비 검사의 문항들 중 본 검사로 선제된 문항들의 응답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 3, 4학년은 본 검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각 학년별로 가치관 전체 및 각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량분석(ANOVA) 결과 등은 <표 1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표 14> 학년별 가치관 평균 및 ANOVA 결과

| | 학년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F 값 | 유의도(p) |
|-----|----|-----|------|------|------|--------|
| 전 체 | 1 | 106 | 3.80 | .39 | 1.04 | .38 |
| | 2 | 86 | 3.88 | .41 | | |

| | | | | | | |
|-----|---|-----|------|-----|------|-----|
| | 3 | 70 | 3.80 | .43 | | |
| | 4 | 43 | 3.88 | .38 | | |
| 국가관 | 1 | 106 | 3.65 | .53 | 1.21 | .31 |
| | 2 | 86 | 3.75 | .44 | | |
| | 3 | 70 | 3.61 | .55 | | |
| | 4 | 43 | 3.71 | .43 | | |
| 사회관 | 1 | 106 | 3.94 | .44 | .38 | .77 |
| | 2 | 86 | 3.92 | .47 | | |
| | 3 | 70 | 3.92 | .54 | | |
| | 4 | 43 | 4.00 | .44 | | |
| 인간관 | 1 | 106 | 3.82 | .44 | .82 | .48 |
| | 2 | 86 | 3.92 | .48 | | |
| | 3 | 70 | 3.84 | .54 | | |
| | 4 | 43 | 3.86 | .45 | | |
| 경찰관 | 1 | 106 | 3.78 | .47 | 2.09 | .10 |
| | 2 | 86 | 3.94 | .48 | | |
| | 3 | 70 | 3.85 | .49 | | |
| | 4 | 43 | 3.93 | .47 | | |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04년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경찰대학생 1, 2, 3, 4학년생(총 47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학년 학생(총 106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완성하였다.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가치관 검사의 하위 영역을 국가관, 사회관, 인간관, 경찰관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하위 영역을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가치관 검사와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0.93, 0.94이며, 두 검사 모두 이론적으로 상정하였던 하위요인들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음이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사이의 상관이 .39로 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pha=0.01$). 가치관의 하위 영역과 대학 성적과의 상관은 국가관이 .40, 사회관이 .28, 인간관이 .29, 경찰관이 .34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이 .56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pha=0.01$). 가치관의 하위 영역과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은 국가관이 .56, 사회관이 .31, 인간관이 .47, 경찰관이 .53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성적 사이의 상관은 .27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pha=0.01$). 대학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성적과의 상관은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와 .27,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1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21,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32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의 가치관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기존의 연구들(황응연, 1975; Bender, 1958; Cross, 1968; Kuh, 1976; Rochester, 1970)에 따르면 비록 대학 생활 동안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치관이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학입학 이후에 학생들의 가치관이 거의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대학 생활 동안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적절한 형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단적인 연구 기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4년간의 학교생활 동안에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특정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들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대학 생활 동안에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적절한 형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교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치관과 대학 성적 및 대학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변성을 지닌 가치관과 만족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을 경찰대학 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고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 교육에 더 많은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즉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대봉 외(2002a).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교육학연구*, 40(3), 181-202.
- 권대봉 외(2002b). 대학생 교육수요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명숙, 강태중, 양미경, 백순근(1994). 초·중등학교 교육 성취 조사 연구(Ⅱ) -조사 설계의 구체화 및 과학 영역의 예비문항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4-4.
- 김신동(1999). 지방공무원 가치관의 차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김정일, 이관춘(2000). 가치관 조사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23, 93-117.
- 김정환, 강선보(1998). *교육철학*. 서울: 박영사.
- 김태길(1981). *가치의 문제*. 서울: 서울대 출판부.
- 김철민(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철민(1999). 가치관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념정의, 가치요소와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6, 53-77.
- 박용현(1970). *태도와 가치관 교육*. 서울: 배영사.
- 백순근(2000).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한 고찰: '교육적 가치' 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3(1), 1-20.
- 백순근(2004).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서민원(1996). 대학교육의 효과성 변인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인재, 백순근(1986). 서울예술전문대학의 입시전형 개선 연구. 서울예술전문대학.
- 전추옥(1989). 가치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정범모(1976).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원식(1976). *정의의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진곤, 이관춘(1997).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개인의 가치와 기업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림과학원(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
- 정혜섭(2000). 가치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차채호(1994). *문화 설계의 심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명희(1983). *교육철학*. 서울: 배영사.
- 황응연(1975).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정규(1984).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 Allport, G. W., & Vernon, P. E.(1931). *The study of values manual*. Boston: Houghton Mifflin.
- Allport, G. W., Vernon, P. E. & Lindzey, G.(1951). *A study of values*. Boston: Houghton Mifflin.
- Astin, A.(1977).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Astin, A.(1993). *What matters in colleges?: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ender, I. E.(1958). Changes in religious interes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7(1), 41-46.
- Broudy, H. S.(1952).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 In L. W. Beck, & R. L. Holmes, *Philosophic Inquiry*(pp.169-420).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Cross, K. P.(1968). *Student values revisited*. Rockville: Maryland.
- Kluckhohn, C.(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luckhohn, R., & Strodtbeck, F. L.(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 Evanston, III: Row, Peterson.
- Kuh, G. D.(1976). Persistence of the impact of college on attitudes and valu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7(2), 116-121.
- Leblanc G., & Nguyen N.(1999). Listening to the customer's voice: Examining perceived service value among business colleg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3(4), 187-198.
- Newcom, T. M., Turner, R. H., & Converse, P. E.(1965). *Social psychology*. NY: Rinehart and Winston.
- Rokeach, M.(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francisco: Jossey-Bass.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 Rokeach, M.(1979). *Understanding human values: individual and societal*. New York: The Free Press.
- Rochester, D. E.(1970). Persistence of attitudes and values of NDEA students-two years post institut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9(3), 205-206.
- Spindler, G. D.(1963). *Education and culture*. NY: Holt, Rinehart & Winston.
- Taylor, P. W.(1961). *Normative discourse*. NJ: Prentice-Hall.
- Williams, Jr. R. M.(1952). *American society*. NY: Alfred A. Knopf.

* 논문접수 2005년 5월 17일 / 1차 심사 2005년 5월 23일 / 2차 심사 2005년 6월 13일

* 백순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분야 박사(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수행평가의 원리",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컴퓨터를 이용한 개별적응검사", "일제강점기의 교육평가" 등이 있다.

* e-mail: dr100@snu.ac.kr

* 김보규: 경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찰대학교 교수요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영역은 경찰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다.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Police University Students' Value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Baek, Sun-Geun* · Kim, Bo 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veal the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value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For this research, two measurement scales were developed: a 'value orientation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and a 'university satisfaction test for students', resulting from two pre-test attempts with KNPU(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106 freshmen. The reliability coefficients(Cronbach's alpha) of these tests were 0.93, 0.94, respectively. Through factor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se tests consisted of theoretically estimated sub-factors that were being appropriately measured.

The test was administered to second, third, and fourth year KNPU students (total 199 studen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value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p < 0.01$) a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year students in the value orien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empirically reveal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value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satisfaction. It also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university's valu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values, value orientation, university student's value orientation, university academic achievement, university satisfaction

부록

<부록 1> 가치관 검사의 하위 영역별 요인분석 결과

<부표 1-1> '국가관'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4 | 5 |
|---------|-------|------|-------|------|-------|
| 희생정신2 | .829 | .151 | .047 | .263 | -.158 |
| 희생정신1 | .818 | .155 | .217 | .048 | .218 |
| 애국심1 | .121 | .894 | .145 | .195 | .171 |
| 애국심2 | .541 | .671 | .181 | .174 | -.111 |
| 통일염원1 | -.020 | .107 | .878 | .114 | .319 |
| 통일염원2 | .283 | .201 | .805 | .191 | -.246 |
| 자부심2 | .239 | .214 | .210 | .820 | -.152 |
| 자부심1 | .200 | .145 | .107 | .795 | .385 |
| 충성심1 | .384 | .521 | .194 | .178 | .561 |
| 충성심2 | .702 | .221 | -.013 | .290 | .315 |

<부표 1-2> '사회관'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4 | 5 |
|---------|-------|-------|-------|-------|-------|
| 자유주의2 | .735 | .069 | .361 | .041 | .182 |
| 자유주의1 | .606 | .220 | -.099 | .033 | .606 |
| 민주주의1 | -.003 | .865 | .042 | .204 | .019 |
| 민주주의2 | .366 | .581 | .156 | .421 | .211 |
| 법치주의2 | .241 | .395 | .715 | -.093 | .022 |
| 법치주의1 | .078 | .611 | .444 | -.274 | .184 |
| 공동체意識1 | .203 | .138 | .039 | .890 | .053 |
| 공동체意識2 | .750 | .024 | .110 | .411 | -.098 |
| 자본주의1 | .018 | .078 | .359 | .048 | .836 |
| 자본주의2 | .137 | -.013 | .779 | .245 | .328 |

<부표 1-3> '인간관'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4 | 5 |
|---------|------|-------|-------|-------|-------|
| 덕성1 | .830 | -.069 | .136 | -.153 | .122 |
| 덕성2 | .715 | .301 | -.005 | .168 | -.250 |
| 지성1 | .056 | .859 | .259 | .065 | .054 |
| 지성2 | .108 | .850 | -.088 | .020 | .233 |
| 윤리의식1 | .357 | .224 | .767 | .041 | -.227 |
| 윤리의식2 | .604 | .030 | .387 | .297 | .058 |
| 강건한육체2 | .091 | .039 | .115 | .926 | .002 |
| 강건한육체1 | .615 | .153 | .164 | .442 | .241 |
| 용기2 | .053 | .259 | .089 | .031 | .879 |
| 용기1 | .049 | -.010 | .792 | .153 | .358 |

<부표 1-4> '경찰관'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4 | 5 |
|---------|-------|-------|-------|-------|-------|
| 정의2 | .845 | .132 | .158 | .117 | .163 |
| 정의1 | .716 | .353 | .302 | -.016 | .059 |
| 사명감2 | .223 | .857 | -.089 | .009 | .175 |
| 사명감1 | .480 | .660 | .143 | .229 | -.054 |
| 봉사정신2 | .273 | -.025 | .815 | .185 | .102 |
| 봉사정신1 | -.040 | .637 | .552 | .320 | -.054 |
| 동료애2 | .429 | .023 | .036 | .808 | .178 |
| 동료애1 | -.166 | .245 | .329 | .773 | .137 |
| 명예2 | .132 | .081 | .229 | .209 | .893 |
| 명예1 | .227 | .100 | .694 | .081 | .401 |

<부록 2> 대학에 대한 만족도 검사의 하위 영역별 요인분석 결과

<부표 2-1>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
| 교수6 | .757 | .135 | .019 |
| 교수5 | .636 | .204 | .300 |
| 교수8 | .625 | .311 | .106 |
| 교수7 | .551 | .070 | .291 |
| 교수9 | .078 | .820 | .091 |
| 교수12 | .166 | .816 | .114 |
| 교수10 | .463 | .480 | .102 |
| 교수11 | .510 | .382 | .287 |
| 교수2 | .180 | .269 | .822 |
| 교수3 | .299 | -.032 | .698 |
| 교수1 | .138 | .485 | .587 |
| 교수4 | .685 | -.141 | .413 |

<부표 2-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4 |
|---------|------|-------|-------|-------|
| 과정1 | .743 | .415 | .041 | -.069 |
| 과정2 | .695 | .315 | .233 | .185 |
| 과정3 | .681 | .011 | .186 | .243 |
| 과정6 | .141 | .713 | .101 | .230 |
| 과정5 | .181 | .654 | .058 | -.067 |
| 과정4 | .025 | .611 | .346 | .456 |
| 과정12 | .130 | .046 | .867 | .085 |
| 과정10 | .487 | .222 | .563 | .116 |
| 과정11 | .345 | .346 | .460 | .244 |
| 과정9 | .188 | .179 | -.041 | .825 |
| 과정8 | .145 | .204 | .475 | .545 |
| 과정7 | .525 | -.161 | .199 | .540 |

<부표 2-3>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3 |
|---------|-------|-------|-------|
| 생활1 | .819 | .098 | -.029 |
| 생활2 | .759 | .251 | -.022 |
| 생활3 | .719 | .238 | .304 |
| 생활4 | .684 | .086 | .336 |
| 생활10 | .124 | .815 | .226 |
| 생활12 | .275 | .793 | .085 |
| 생활11 | .308 | .772 | .023 |
| 생활9 | .675 | .356 | .329 |
| 생활7 | -.037 | .272 | .688 |
| 생활5 | .336 | .028 | .659 |
| 생활8 | .227 | -.069 | .611 |
| 생활6 | -.028 | .346 | .467 |

<부표 2-4> 향후진로에 대한 만족도 영역 요인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1 | 2 |
|---------|------|------|
| 진로6 | .761 | .077 |
| 진로5 | .755 | .159 |
| 진로3 | .706 | .072 |
| 진로4 | .615 | .393 |
| 진로2 | .501 | .226 |
| 진로1 | .440 | .150 |
| 진로9 | .218 | .751 |
| 진로8 | .068 | .743 |
| 진로10 | .104 | .633 |
| 진로12 | .467 | .566 |
| 진로11 | .582 | .529 |
| 진로7 | .381 | .371 |